

도내 육아휴직 사용자 2명중 1명 퇴직

전북연구원, 2015년 육아휴직 전년대비 26.5% ↑ ... 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 근무 59.5%

전국 대비도 꾸준히 증가 일·가정 양립 여건 상승 기업구조·노동시간 불안요소 전북연구원, 활성화방안 제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가 사용 인원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북지역 출산 등을 위한 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높고 꾸준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의 기업구조 특성이나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노동시간 등은 여전히 일과 가정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이용자 약 2명 중 1명은 같은 회사로 복직하지 못한다는 통계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통합적 권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섯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2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 육아휴직사용자는 총 1,776명으로 전년대비(1,403명) 26.5%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율인 13.8%보다 12.9%p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14년 전국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전년대비 1.9% 감소(90,507명→88,756명)였으나 같은 해 전북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오히려 0.3% 증가(1,898명→1,909명)였다.

전북연구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북 출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법정 출산휴가의 보장, 출산휴가 급여 90일 전액 지급(고용보험), 육아휴직 대상연령 확대



선진 농업기술 배우러 22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미래 선진농업 설계를 위해 네덜란드 첨단 유리 온실 농장을 방문해 친환경 파프리카 재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8세) 등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정책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직장어린이집 사업장의 설치 이행률(2014년 의무업체 기준)은 84.4%(32개소 중 27개소)로 전국평균 75.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13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에 따르면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은 59.5%를 보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10%이하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80%나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

장 근로자들과 같은 일·가정양립제도 지원의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4시간으로 OECD 평균(36.8시간) 보다 5.6시간 많아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5가지 정책적 시사점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2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방안은 ▲휴가휴직제도 사각지대(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해소와 가족친화인 중기업 확대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 패키지제도 도입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권리와 개선을 위한 정책지표 공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등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등이다.

전북연구원 조경숙 연구원은 "전북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으로 정책수혜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의 근로문화개선, 일·가정양립패키지제도 도입 정책권리와 개선을 위한 일·가정양립지표공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 지원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부안군 '자연애' 귀농교육 3기 개강

서울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서

부안군은 서울 방배동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부안군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한 "자연애" 귀농학교 개강식을 지난 7일 가졌다.

"자연애" 귀농학교 교육은 귀농을 희망하는 4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이틀씩(1일 6시간) 16회에 걸쳐 귀농정착 맞춤형 교육으로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군 특화직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개강식 특강에서 김종규군수는 "부안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라는 "부안만복"을 주제로 부안군의 오복정책과

소공동 행정을 소개하고 부안군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안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 적극 수도권 귀농인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자연애 귀농 3기 전문교육 과정은 6월 2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한 농대 작목별 전문교수진과 농진청 연구관, 부안군 관계자 등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10시간 동안 귀농기초설계, 성공적인 귀농정착 조건과 성공사례, 작목별 재배기술,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중진공,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정책자금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이 자기진단 진행 후 상담일정을 예약해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담 예약 일시에 중진공을 방문해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사전상담 예약은 전국 31개 지역본

(지)부에서 시행하며 중진공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에서 자기진단 후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으로 중진공의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와 전국 31개 지역본(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체험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종료

지난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22일 막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약 7만명이 방문해 대표적인 정부3.0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부 3.0 대표 성과들 가운데 국민의 관심이 많고 일상 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례들이 전시됐다. 드론, 크로미영상, 가상 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행자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제청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

는 신고서를 국제청 보유자료로 알아서 미리 채워주는 연발장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밖에 가상 지진 체험과 안전 신문고 운영을 소개한 안전체험관(국민안전처), VR을 통한 가상 전투 체험(방위사업청), 큰집거미 새우를 잡을 수 있는 낚시 체험(해양수산부), 자신의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 만들기(식약처), 재활용품으로 만든 환경볼이더(환경부) 등의 체험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손끝으로도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모바일,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대통령 표창, 남원시 환경부장관 표창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린 2016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 전북도가 전북형 정부 3.0 우수사례를 소개한 결과, 전주시가 공유·확산분야에서 '열린바우처 교육사업'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016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한자리에 살펴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 행사에서 도는 역점 시책인 탄소산업 육성과 전북투어패스 및 2017년 무주 세계대관도대회 등 홍보와 맘(MOM) 편한 세상 전라북도'를 주제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전북형 정부 3.0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행사 속에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도는 전주

시, 김제시, 남원시 등과 함께 4개 분야에 참여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분야 및 과제명은 광역자치체 분야의 '부르르간다, 콧바스(전북도)', 기초자치체 분야의 '비율변화사 제도 운영(김제시)', 공유·확산 분야의 '열린바우처 교육사업(전주시)', 환경행정 분야의 '기관간 협업으로 모두가 윈윈! 협오시설 공동활용(남원

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환경행정분야에서 기관간 협업으로 모두가 윈윈! 협오 시설 공동활용' 과제로 대상 수상해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권키에게 날개를 달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달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다!

〈김양옥 전담교수 외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대표
- 스피치리더십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턴트
- 저서: '35원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웨어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실공고

- 분실내용: 아파트 분양계약서 (예코시티 더 2차@ 1001-503)
-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와룡2길 15, 106-1303

2016년 6월 22일 공고인 안 솔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